

될 수 없었고, 이때 이르러 세인의 진체(眞體)는 이미 그의 사람이 되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 사람으로 전생해 설법하고·도를 말하는 데에 이용되었던 사람마저도 모두 창세주의 사람으로 되었다. 목적은 신이 인체(人體)를 이용해 창세주가 최후에 세인을 구도할 수 있게 신의 문화를 다져주는 것이었고, 남겨둔 여러 정교(正敎) 역시 인류의 도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창세주의 최후 구도를 기다려 왔다. 창세주로서, 그는 그의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고, 그는 또 그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권리이므로 누구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그의 최고의 은혜(恩典)이다!

창세주는 천체 중 일체 신의 주(主)이고, 그는 만주(萬主)의 주(主), 만왕(萬王)의 왕의 창조자이며, 그가 만든 삼계 중의 모든 사람·신(神)·사물을 포함한 일체 중생의 주재자이다. 그의 사랑은 중생에 대한 최고의 성은(聖恩)이다! 세인이 그에게 사랑받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이고 행운이다!

師 李洪志

2023년 4월 17일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師 李洪志, 2023년 4월 17일)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창세주는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그가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생명은 모두 그가 준 것이기 때문이다.

천체가 성(成)·주(住)·괴(壞)·멸(滅)의 말후(末後)에 이르렀을 때, 창세주는 2억 년의 시간에 걸쳐 삼계를 만들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각종 형식과 기연(機緣)을 배치했으며, 동시에 사람의 문화와 사상 행위를 다졌다. 그는 또한 중생의 죄업을 해소(消解)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神體)를 사용했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말후 구도를 시작할 때 사람이 신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2억 년 동안 창세주는 무수히 분신하여 세상으로 전생(轉生)해 인류의 문화를 다지고 인류의 도덕을 지켜보며 수호했다. 역사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생명은 천만년을 거듭 윤회전전(輪廻轉轉)하며 기다렸고, 세인의 생명진체(生命眞體)(각 민족을 포함한) 대부분은 차츰 창세주와 각종 혈연(親緣)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는 창세주가 그의 세인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말후에 이르렀을 때, 구도를 더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창세주와 이런 관계가 없는 생명은 이때 사람이